

기록조직론

이해영 저. 서울: 선인, 2013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교육총서 1)

이 켜 마*

당초 이 책 「기록조직론」은 금년 3월 실시된 제1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을 위한 수험서용으로 발간되었다. 각 학교에서 기록관리 전문직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교재가 부재한 가운데서 자격시험을 목전에 두고 필사의 노력 끝에 교재가 집필되었다고 추천사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짧은 기간 집필된 교재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기록조직 분야의 충실한 저서’라는 느낌을 받았다. 필자는 평소에도 여러 가지 기록관리 분야 중 기록조직 즉, ‘기록을 어떻게 분류하고, 정리하며, 그 결과를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할 것인가’가 기록관리의 가장 중심이며 가장 전문적인 영역이라 생각해 왔다. 그러나 기록조직에 대해서는 이미 원전이 되어버린 서구의 정리이론과 몇몇 번역서 외에 뚜렷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는 책이 부재했던 현실에서 자격시험은 둘째치고라도 기록조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을 선별하여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명료하게 집필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사서사무관. 주요 논저: 「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업무편람」(역), 2004; 「기록관리 비상계획: 업무편람」(역), 2006.

이 책은 크게 '1장 기록조직화: 분류와 정리, 2장 메타데이터와 기술, 3장 검색도구와 기록의 통제'라는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아마 분류와 정리가 기록조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는 활동이며, 전자기록의 생애주기에 따른 기술은 메타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메타데이터와 기술을 같은 장에서 다루었고, 이러한 기록조직의 결과물을 통해 기록을 적절하게 통제, 활용하기 위한 방법론을 그 다음 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1장 기록조직화'에서는 기록조직의 두 개 축인 분류와 정리에 대해 다루었다. 분류는 ISO 15489에서의 분류개념, 기록을 생산하게 한 업무 분석에 기반한 기록분류 방법론과 우리나라의 기록분류체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정리는 영구보존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 기록물 정리원칙 및 방법론을 주로 다루었으나, 동일하게 '기록물 정리'로 명명되는 기록물 이관을 위해 처리과, 기록관에서 행해지는 기록물정리 절차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술되었다.

'제2장 메타데이터와 기술'에서는 전자기록의 진본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기록생산부터 기록의 내용과 구조, 맥락, 관리이력을 기술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에 설명하였고, 메타데이터의 상호이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MDR)에 대한 내용도 간략히 소개하였다. 또한 영구보존 기록물을 기술하기 위한 국제기록물기술규칙 등 주요 기술규칙을 소개하였다.

'제3장 검색도구와 기록의 통제'에서는 기록물 분류, 정리, 기술을 통해 서비스 되는 각국의 주요한 검색도구를 설명하고, 기록 생산맥락과 검색어 통제를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거레코드와 시소러스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책은 교육교재로서의 집필 의도에 맞게 기록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과 표준, 법적인 사항들, 실제 운영내용이나 사례들을 모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설명했다는 점에서 기록관리전문가 양성이나 기

존 전문가들의 소양을 기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실무자들의 이해를 위한 최신의 적절한 사례 제시가 더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단위과제카드 표제부(2006년)는 최소한 2012년 말 행정안전부의 변경된 표제부를 사용하거나 검색도구의 경우도 국가기록원의 다양한 사례를 포함시켰다면 실무적으로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한다. 이는 부족한 집필 시간으로 인해 미처 챙기기 어려웠던 부분이라 생각되며, 실제 교육 시에는 현장의 사례를 좀 더 추가하여 활용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기록조직의 기본적인 개념과 일련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설명함으로써 기록물 분류, 기록물 정리, 기록물 기술 등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실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책이 아닐까 생각된다.